

왜 추방인가?

2부

예슈아의 죽음과 부활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에 비견될 수 있으며, 그 역도 성립합니다. 유대교인들은 아브 월 9일에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예슈아께서 그러셨던 것과 아주 흡사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애곡합니다 (눅 19).

애가에는 십자가에 대한 영적 상징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1. 손을 펴심 (애 1:17)
2.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 (애 2:5; 3:1)
3. 신 포도주를 마시심 (애 3:15; 19)
4. 십자가를 지심 (애 3:27; 5:13)
5. 땀을 맞으심 (애 3:30)
6. 지옥 (pit)으로 내려 가심 (애 3:55)
7. 피 흘리고 찢리심 (애 4:9) [히브리어로는 ‘야주부 yazubu –(피처럼) 흘러나오다,’ ‘므두카림 m’dukarim –찢림을 당하다’]
8. 죽음 당한 자들의 콧구멍에 메시아의 영이 임함 (애 4:20)
9. 타인의 죄악을 위해 고통 받으심 (애 5:7)
10. 손으로 달리심 (애 5:12)
- 11.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적 심상 (image), 예레미야의 고뇌와 예슈아의 죽음이 서로 겹쳐 있습니다.

현대 시온주의 랍비들은 추방은 그 자체에 재결합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kedem) 같이 하옵소서 (애 5:21).”** 추방과 재결합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 (kedem)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어 (애 2:17).”**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은, 마치 예슈아의 죽음과 부활처럼 하나님께서 맺어놓으신 것입니다. (벧전 1:20; 계 13:8).

탈무드에 따르면, “이유 없는 증오”와 (요마 Yoma 9:2) 캄짜 Kamtza 와 바르 캄짜 Bar Kamtza 의 이견 (기틴 Gittin 55:2)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율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 (바바 메찌아 Baba Metsi'a 30:2)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를 더 쉽게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어 (애 1:8).”**

때로 저희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종교적, 세속적 유대인들처럼 추방의 주된 이유가 반유대주의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취한 입장은, 추방이 저희의 죄를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그저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허나 당시 선지자들은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두 번째 이유도 말했습니다.

속 1:15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I am exceedingly angry with the nations at ease; for I was a little angry, and they helped □ but with evil intent (신 흠정역 NKJV)

I was only a little angry but they added to the calamity (신 국제역 NIV).

유대 민족의 추방은 하나님께서 저희 죄 때문에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잔학하게 다룬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주께서 의도하신 것에 형벌을 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추방시키실 만큼 그들에게 화가 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는, 유대인들을 박해한 이방인들에게 현재 품으신 진노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사 47:6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는 것은 당신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열방을 꾸짖으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학대함을 인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열국이 긍휼을 베풀 기회를 놓쳤다고 말합니다. 샤울 (바울)은 추방이 이방인들에게 있어 "유대인들을 시기에 할 (롬 11:11, 14)" 기회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긍휼, 사랑, 선행에 기인한 긍정적 형태의 시기입니다.

추방에 대한 2 가지 신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세기 메시아닉 유대인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나머지 유대인들과 함께 흩어져, 구원의 복음을 온 이방 민족들에게 전했습니다 (**행 8:1; 롬 11:11; 15**).
2. 2,000 년의 유랑 기간 동안, 열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겐 유대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고, 반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대부분이 기독교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들 가운데 살았던 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은 세계 열국이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 13, 50, 51; 겔 38, 39; 속 12, 13, 14**). 이 공격은 반유대적-반기독교적 영들의 궁극의 표출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게 하는 요인들 중 하나가 될 것이요, 예슈아 재림 직전의 민족적 부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국에도 다림줄이자, 거치는 돌이 되는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은 열국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이냐, 그 분을 대적하는 편이냐를 갈라놓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악의 편이냐 의의 편이냐를 결정하는 최후의 윤리 시험이 될 것입니다.

예슈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개인은 윤리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종말의 대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 모든 민족은 윤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십자가 위에” 놓이고, 열국의 구속이냐 심판이냐를 갈라놓는 기준이 되어 제사장적 역할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주: 랍비들은 이사야 53 장이 예슈아께 대한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에 대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 아닌 것은, 의로운 종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사 53:8)"**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사야에서 고난의 종에 대해 말씀하는 구절들 중 절반은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1 차적 의미는 메시아지만, 2 차적 의미는 유대 민족인 것입니다.

예슈아께서는 약속된, 유일한 (THE) 구속자이십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그 분의 형상을 닮고 그 희생적 사랑을 증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추방과 고난도 예슈아의 십자가와 구속적 희생을 투영합니다.]